

“불교대학 · 불교대학원 비전선포식 및 동문의 밤”

축하영상메세지

동문들이 밝은 얼굴로 모여 불교대학과 대학원의 비전을 선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교수님과 동문들의 의지로 이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이 학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적지 않지만,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고 다가올 내일을 미리 준비하여 과감히 변화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오늘 비전으로 제시되듯이 불교학은 국제적 선진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불교의 세계화에도 맞물리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여 발원하는 거룩한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두손 모아 축원합니다.

종단 역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